

2020년 8월호, 역대하 인도자용 소그룹 교재

오치용 목사, 예수사랑교회

(Rev. Chiyong Oh, Korean Jesus-Love Church, IL)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6:18-21

1주: 기도의 성소

새(364장)/통(482장) -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새(366장)/통(485장)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369)/통(487장)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 여는 질문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던 예배당이나 기도의 장소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나 즐겨 찾던 기도의 장소 역시 있을 것입니다. 과거 혹은 지금 자신에게 특별했던 장소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2. 본문 이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정을 살펴달라고 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성전이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공간에 제한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룩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글이 읽힐 즈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상을 빼앗기고 예배당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기고 보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저 건물일 뿐이라고, 삶의 예배, 일상의 기도가 중요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 공간 속에 쌓인 삶과 신앙의 흔적을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께 구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말씀 속으로

(1) 솔로몬은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18절)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은 물론 하늘이라도 담아낼 수 없이 크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2)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20,21절)

[자신과 그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 삶 속으로

(1)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봉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우리 신앙의 흔적이 짙게 베어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납니다. 하지만 구별된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하듯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일상의 하나님 경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 성전과 같이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을 통해 배우게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일상을 새롭게 하는지 나눠지도록 하십시오.]

5. 암송 구절: 역대하 6: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6.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께 언제 기도를 드리나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기도에 대해서 대화 나누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16:1-10

2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라

새(380장)/통(424장) - 나의 생명 되신 주

새(370장)/통(455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382장)/통(432장)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여는 질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인가요?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은 대개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얼마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본문 이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오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벤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도우러 나섭니다. 그 덕분에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예언자 하나니는 아사 왕을 찾아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많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화가 나서 예언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 왕은 이전에 구스 사람과 룬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권력에 취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몰려올 때 당연히 현실적인 도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이란 그 깊이가 100km가 넘는 바다 위에 떠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몸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부력을 신뢰하고 바다에 몸을 맡긴다면 떠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칩니다.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는 말씀은 그걸 믿지 못하고 걱정애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향한 꾸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의 바다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수록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놓여나 좀 더 자유롭게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3. 말씀 속으로

(1) 예언자 하나니가 이사 왕을 질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람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2) 예언자 하나니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9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4. 삶 속으로

(1) 하나님을 신뢰해서 좋았던 경우나 혹은 신뢰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들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과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신뢰할 만한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임을 증명하는 고백들입니다.]

5. 암송 구절: 역대하 16:9 상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6. 자녀와의 나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25:1-2, 14-16

3주: 전부가 아니라면

새(314장)/통(511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312장)/통(341장) -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새(322장)/통(357장) -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 여는 질문

자신이 소유한 물건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지,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세요. [각자가 아끼는 물건들과 그 이유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주제에 들어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아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 우리 삶과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2. 본문 이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2) 아마스 왕에 대한 역대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새번역은 이 부분을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평가처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 나섰다가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충고조차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충고를 무시한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다가 패하고 맙니다. 후에 그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만큼 신앙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도 지키고 영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지만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하나의 교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삶은 재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혀 다른 재산으로의 삶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절대 가치가 되거나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은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전체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아마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4,15절)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4. 삶 속으로

(1) 아마샤의 우상처럼, 부자 청년의 재산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끝내 포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재산을 다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재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됩니다. 마음을 머물게 하고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삶의 도처에 널려 있는, 하나님 대신 마음을 주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2)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늘 보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깨달은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셨나요?

[신앙은 의지적인 노력 이전에 은혜에 의해 이끌려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때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5. 암송 구절: 역대하 25:2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6. 자녀와의 나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령대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역대하 30:1-12

3주: 그제 문을 열면 됩니다

새(535장)/통(325장) - 주 예수 대문 밖에

새(292장)/통(415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300장)/통(406장) - 내 맘이 낙심되며

1. 여는 질문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장 크게 용서받아본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나눔입니다. 서로의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알아가는 것만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2. 본문 이해

성전 제사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켜오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합니다.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조상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발꾼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초청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의 은총을 누립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하며 실망하고 한탄하는 이유는 그 기대를 저버리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도,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실 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두드리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시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분의 한없는 인내와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문을 열기만 하면 맞아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거지요.

3. 말씀 속으로

(1)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보발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까? (9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4. 삶 속으로

(1)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경험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던 기억은 이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아직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관대한 편인가요? 여전히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큰 빛을 탐감 받은 사람이 작은 빛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입니다.]

5. 암송 구절: 역대하 30:9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6. 자녀와의 나눔

누군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왜 그 친구가 알미운가요? 그 친구를 용서할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미움과 용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격려하는 질문과 답이 되게 해 주세요.]

